



장사는 농이촌 행복한 국민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12. 1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
과 장 : 박 범 수
사무관 : 장 귀 표
전 화 : 02-500-2389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있음(1P)

이 자료는 2010년 12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내년도 9곳에 바다숲 650헥타르 새로 조성

- 농식품부, 여수엑스포 전시용 바다숲 등 130억 투입 -

-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에 인천 옹진군 백령도 등 전국 연안 9곳에 650헥타르의 바다숲을 새로 조성한다.
 - 농식품부는 내년에 130억원을 투입해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8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 양양(87헥타르), 울진(76헥타르), 삼척(59헥타르), 여수 거문도(15헥타르), 부산 영도(50헥타르), 통영 사랑(41헥타르), 서귀포(208헥타르), 제주도(104헥타르) 등에 약 650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이다.
 - 바다숲 사업 첫해인 2009년에는 4곳에 120헥타르, 지난해에는 10곳에 250헥타르를 조성했다.
 - 바다숲은 바다 속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해조류 밀집군락으로 어류, 패류, 갑각류 등 수산생물의 산란·서식지 역할은 물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.

- 농식품부는 또 2012 여수엑스포 개최지인 여수신항에 관람객들이 바다숲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길이 90미터, 넓이 30미터의 대형 가두리형의 교육 및 전시용 바다숲을 조성한다.
 - 또한, 오동도로 이어지는 방파제 주변에는 모자반 등 해조류가 부착될 수 있도록 갯닦기 사업을 실시하여 행사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낚시체험 등 레저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충남도, 전북도 등 서해지역에 잘피숲을 조성해 학생 및 일반시민들이 잘피형 바다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.
- 농식품부는 동·서·남 및 제주 연안 등 전국 연안에 2020년까지 총 3만5천헥타르의 바다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
 -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연안의 갯녹음 및 해양오염을 막아 물고기의 산란·서식장을 제공하고,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.

2011년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예정 지역

해역	조성 지역	면 적(ha)	비 고
동해 (3)	강원도 양양군 기사문리	87	
	강원도 삼척시 노곡리	59.1	
	경북 울진군 현내리	76.2	
서해 (1)	인천시 옹진군 백령도	8	
남해 (3)	전남 여수시 거문도 거문리	15	
	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	50	
	경남 통영시 사랑면 돈지리	41.2	
제주 (2)	제주도 서귀포시 하예리	208	
	제주도 제주시 동귀리	104.4	
합계		648.9	